

다산포럼



김 태 희
다산연구소장

본디 시(詩)를 좋아하지 않았다. 시에 익숙하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학교 공부로 배웠지만, 그 시는 그저 교과서 속의 시였을 뿐이다. 다행히 그 후 시와의 거리감을 줄일 계기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는 시인이나 쓸 수 있는 장르였다. 시가 요구하는 정형성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다. 역시 글은 자유분방한 산문이라는 생각이었다. 시는 내게 ‘신 포도’였다.

최근 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갈수록 짧은 글을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둘째는 스스로 필요하기 때문인데, ‘박문이익지’(博聞而約之)와 글쓰기 연습이다.

요즘은 신문 칼럼도 에스엔에스에서 소개된 것을 모바일을 통해 읽는 실정이다. 모바일에선 긴 글은 질색이다. 사회

가을엔 시(詩)를

전반적으로 긴 글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글을 짧게 써야겠다는 강박관념 속에 떠오른 것이 시라는 장르다. 가랑 트위터 글자 수가 140자라면, 시조 한 편은 45자 내외다. 세 편의 시조도 쓸 수 있겠다.

그러나 모바일 환경에서 시가 제대로 읽힐지는 알 수 없다. 모바일의 독서는 책을 통한 고전적인 독서와 맛이 다르다. 또한 책장을 넘기면서 상당한 시간을 확보하여 상상력을 펼치거나 깊은 사유를 하면서 행하는 고전적인 독서를 모바일 독서가 완벽하게 대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마치 티브이가 등장하고도 라디오의 자리가 있고, 영화관 극장의 분위기가 있듯이, 각자의 특성 있는 독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매체에 따라 적합한 글의 형식이 있다고 봐야 한다. 모든 글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데 휩쓸리는 것을 경계할 필요도 있다. 짧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필요가 있다.

여전히 짧은 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통적인 ‘박문이익지’(博聞而約之)의 관점에서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를 짧은 글로 요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부

의 지식을 내부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언어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을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내 생각을 외부로 표현할 때도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 짧은 글을 생각해 본다. 옛글에 ‘문자는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림은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書不盡言 圖不盡意)는 말이 있다. 언어 문자는 도구로서의 본래적 제약이 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본의와 멀어지고, 글이 길다 하여 뜻이 더 잘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일부만 말하여 여백을 살리기도 하고, 아예 말을 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필자가 시라는 형식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문자언어의 제약성과 닮아 있다. 그런 것은 오히려 감내할 만한 것이다. 본디 그런 것이니까, 제약 속에 어떻게 자신의 뜻을 담아 낼까 하는 것은 오히려 시도해 볼 만한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한 시를 짓느냐 하는 것은 자치하고, 형식에 맞추어 짓다 보면 글쓰기 연습이 되고 나아가 하나의 유희가 된다.

시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외부의 자극도 있었다. 송재소 교수의

‘중국 인문 기행’을 따라다니다 보니, 한시(漢詩)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또한 동행하는 분 가운데는 한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면서도 한시를 짓는 분이 있어 부러웠다.

한시는 연감생심인 필자에게 관심을 끈 시의 형식이 바로 시조(時調)였다. 대략 45글자로 분량도 적은 데다 여기에 제목을 없으면 완결성을 갖추는 데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음절 구분이 뚜렷한 한글이어서, 서너 글자로 한 음보를 구성하고 네 음보의 운율을 살리면 그만이다. 성조(聲調)가 발달한 중국어로 된 한시의 운(韻)처럼 까다로운 것도 없다. 삼행시를 쓰는 기본으로 즐길 만하다.

최근 에스엔에스 공간에선 날카로운 댓글들이 난무한다. 현실에선 국가 지도자조차 거친 언사를 뱉어 낸다. 감정을 과시키고 자신의 뜻을 은근히 담아 둘 시적 감각과 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닐는지.

시조는 원래 노래 가사였다고 한다. 사실 대중가요 가운데 음악 없어도 되낼 만한 좋은 가사들이 있다. 시는 결코 범접하지 못할 그 무엇은 아니다. 봄꽃보다 더 붉은 가을 잎의 계절에, 시를 한 수 읊어 보자. 꼭 자작시일 필요는 없다. 이 가을엔 시를 한번 읊어 보자.

社 說

우리말 우리글 가꾸고 아꼇수록 빛난다

어제는 571돌 한글날이었다.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마음을 그려내는 빛, 한글’이라는 주제로 경축식이 열렸다. 한데 ‘여는 말’(개식) ‘닫는 말’(폐식) 등 쉬운 우리말이 눈길을 끌었다.

한글날 경축식 최초로 한글학회 자문을 받아 경축식 식순을 한자어 위주에서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애국가 제창은 ‘애국가 다 함께 부르기로, 훈민정음 서문 정독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로, 경축사는 ‘축하 말씀’으로 바꾸어 진행됐다.

출입말과 신조어 등 언어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외래어·외국어 남용도 이즈음에 늘 나오는 얘기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글날 경축식 식순에 등장한 우리말은 신선하고 반가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만백성 모두가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누구나 자신의 뜻을 쉽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 것,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신과 통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글의 가장 위대한

점은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우리말을 들리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 쉽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말글살이(언어생활)를 되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한글 사랑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마저도 우리말 우리글을 훼손하기 일쑤다.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홍보자료에도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볼 수 있다. TV방송에서도 시청률을 의식해 상당수 연예·오락프로그램이 우리말 파괴를 부채질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한글 탄압과 말살 정책에도 숨겨진 학자들의 희생 속에 살아남은 한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한글의 우수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이를 가꾸고 빛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우리말과 글을 다듬는 것은 혹독한 일제치하에서 한글을 지킨 우리 선조에게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말 우리글, 가꾸고 아꼇수록 빛난다.

여·야 정치권 추석 민심 쓴소리부터 듣기를

추석 연휴를 앞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역 여론을 살피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호남 민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양당은 이미 조직을 선거 체제로 개편해 호남 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정탈전에 뛰어들었다. 선거를 위해서는 조직 정비가 필수적이지만 궁극적으로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질 핵심 보직인 정책미디어실장과 조직국장을 새로 임명했으며, 전남도당도 최근 신입 정책실장을 임명하고 선거 준비 업무를 담당할 지방선거기획단도 꾸렸다. 국민의당도 광주시당과 8개 지역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했다.

하지만 조직 정비만큼이나 양당의 소통과 협치를 바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통은 필요한 쪽에서 먼저 다가가야 한다. 상당

수 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문제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여당이 협치를 위한 노력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지지율이 바닥이지만 지역민들이 다당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민의당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과 협치는 하되,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호남인의 사랑과 호남제1당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민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석 민심을 받아들여 지역 문제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먼저 다가가는 포용력을, 국민의당은 비판은 하되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 협치의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

無 等 鼓

몇 해 전, 담양 저수지에서 생소한 곤충을 봤다. 생김새로 보서는 분명 잠자리인데, 기존에 알고 있던 잠자리와 날개 모양이 너무 달랐다. 망사처럼 투명한 날개를 가진 보통 잠자리와 달리 먹물에 더트 같은 진한 검은색 날개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두 쌍의 날개 가운데 아랫날개가 나비처럼 기형적으로 더 컸다.

어렵사리 알게 된 곤충의 정체는 ‘나비잠자리’였다. 동남아 등지에서 기류를 타고 한반도에 유입된 비래(飛來) 곤충인데 농작물에 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그

외래 해충

러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대부분의 곤충류는 해충이다.

국도를 이용하다 보면 간혹 소나무 이동을 금지한다고 내걸린 플래카드를 접하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 껍질을 갉아먹는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며 한국의 대표적 수종인 소나무를 매년 수십만 그루씩 말라 죽게 하는 해충이다. 1980년대 말에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께 중국에서 유입된 ‘꽃매미’

강산을 걷다

인가? 답임 선생님과 학생들이 앞장서고 나는 맨 뒤에 따라갔다. 밖에 나와 이래저래 잔소리하는 것은 꼰대의 표본이다. 집을 나서면서 다짐했다. 오늘 하루는 있는 듯 없는 듯이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뒤처진 학생들을 달랠다. 내 역할이다. 파전, 막걸리, 백숙집은 추억처럼 흘러 아래로 이주하고 축대 이끼만이 흔적으로 남았다. 함께 간 학생부 선생님께 조치를 부탁했다. 평일인데도 무등산은 북적였다. 많은 등산객들이 대견하다며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중매리재는 민둥이 아니었다. 억새꽃과 학생의 웃음꽃이 어울려 피었다. 끼리끼리 먹은 점심, 모양은 겁받이로되 맛은 금밥이었다.

여고에서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여고 시절의 잊지 않는 낭만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따뜻하고, 삶은 더불어 함께하는 여고생이 되도록 가르치고자 했다. 소풍 제목을 ‘억새 핀 가을, 무등산 종주 등반’으로 했다. 17km, 7시간, 무등산 종주다.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했다. 뒷산도 안 가본 여고생이라고 했다. 걷기 싫어한다고, 몸이 약하다고, 위험하다고, 무리다고, 학업에 지장을 줄

지 모른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의 동참도 안내했다. 여고생 딸과, 딸의 친구와, 딸의 답임선생님과 하루 내내 평생 잊지 못할 산행의 추억을 만드시라고 했다.

1학년 전체 285명, 행정실도 함께한 교직원 30여명, 학부모 80여명, 총 400여명의 교육 가족이 40개 조별 깃발을 나누며 산장에 모였다. 원호계곡을 거 건너에 두고 구절초 같은 하늘 아래 무등을 올랐다. 대열은 중봉을 감아돌아 억새밭 능선을 따라 장강처럼 흘렀다. 은빛 억새꽃과 맑은 여고생은 장관이었다. 서석대를 향한 숨결은 격력 막혔고, 대화는 끊겼다. 가파른 산길에 친구들과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서석대에 올라 시가지와 무진별을 보면서 서로를 부여잡고 환호했다. 입석대를 지나 억새 물결 일렁이는 백마능선을 바라보며 장봉재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의 여정은 지공너널, 규봉암, 억새평전, 고막재로 동북쪽 배사면의 느슨한 내리막이지만 길었다. 해는 기울고 다리는 풀렸지만 우리는 종주를 했다.

2학년 봄이 되면 ‘섬진강 강변 걷기’를 했다. 상처 입지 않고 남아난 강줄기. 고달에서 입룩까지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

면서 걸었다. 굵어진 강변을 친구의 손을 잡고 7km를 걸었다. 땀별 아래지만 작년 무등산 종주에 비하면 평지의 산책이라고 했다. 무등산은 섬진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스스로 먼저 나약하다고 생각할 때 심신은 거기에 머물게 된다. 학생들은 나약하지 않았다.

다녀와서는 고개를 흔들었다. 쳐다보기도 싫다고 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 섬진강이 흐르고, 무등산이 솟고 있었다. 포기 직전에 부족해진 친구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수 만년 우리 곁에 솟아있고, 흘렀던 남도의 자연은 이렇게 교육 현장이 되었다.

이러한 체형 학습은 대입 면접이나 취업 면접 때 ‘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니 기회를 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이유를 묻거든 ‘여고 1학년 때 무등산을 종주했고, 2학년 때에는 섬진강변을 걸었습니다. 여고 시절 조국의 강산을 걸었기에 내 몸은 건강하고, 지친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동생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나는 준비된 미래입니다.’고 대답할 것이다. 현명한 면접관은 합격시키지 않을까.

이 가을, 무등에 한 번 가보시지요.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

언제까지 정치인의 ‘선의’에만 기댈 건가

방자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것은 참여와 자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년 세월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 평화, 복지와 같은 가치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다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때만 해도 큰 염려는 하지 않았다.

결국,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멋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다. 혈세 수십조 원을 강에 퍼붓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탄압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최고 권력자 한 명의 ‘선한 의지’에만 나라의 운명을 맡겼던 것이다. 권력자의 ‘선한 의지’는 너무나 불명확하다. 선출직 권력자들이 모두 선한 의지를 갖고 있을 리 만무하고, 그 의지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크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다. 선한 의지에 기대지 않고, 권력자가 선한 방향으로 일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지방자치회는 이 시스템을 세울 최적의 장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후퇴한 민주주의, 인권, 복지를 지역에서 되살린 사례가 많다는 것이 지방자치와 시스템

의 관계를 입증한다. 학교 무상급식,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관 공동복지망은 이제 우리 사회의 대세가 됐다. 지방자치가 일군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토보를 막을 시스템으로 당당히 서 있다.

지난 겨울을 지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시스템을 더욱 굳건히 마련할 좋은 조건을 우리는 만났다. 그 조건은 바로 ‘촛불항쟁’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봉건왕조 시대의 불법이 자행됐지만 시민들이 촛불로 바로 잡았다. 촛불시민의 요구는 민주주의 확립, 자치분권으로 권력 사유화 방지, 기울어진 운동장의 복구 등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이 요구의 실현은 국가단위에서도 가능하지만, 지역에서 뿌리내려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효율과 속도 측면에서 좋다고 본다.

지인의 말처럼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가 보다 좋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뒷받침하는 동력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선한 방향으로 가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은 참여에 있다. 행정, 그리고 일상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지속가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주민들은 훌륭한 역할을 보유하고 있다. 주민이 이웃과 갈등을 자율적으

교단에서



김 진 구
울산중 교감

연휴 전에 무등산을 다녀왔다. 4년 만이다. 마침 3학년 전체 130여 명이 가을 소풍을 중매리재로 간다기에 함께 나갔다. 예전에는 봄, 가을 두 번 소풍을 갔다. 지금은 대부분 학교에서 한 번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로 대체하기에 한 번만 간다. 설레거나 기다림이 많이 느슨해졌지만 그래도 소풍이다. 말 그대로 교정을 벗어나 유적이나 자연탐사, 놀이공원 등에 바람 쐬러 가는 날이다. 학년 전체가 움직이기도 하고, 학생 의견을 물어 반별로 영화관, 대학캠パス 등 다양하게 가기도 한다.

가을 초입이어서 산뱃나무 몇 잎 노릇할 뿐 싱싱했다. 승숙(僧俗)을 나누는 중심사 일주문은 그대로인데 옆으로 낸 시멘트길에 더 바쁘다. 대도무문(大道無門)

기 고



조 성 철
사단법인 새벗포럼 상임대표

얼마 전 지인을 만났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던 중 그는 “지난 9년이 너무나 답답하고 무력했다”고 털어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있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역사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복지를 지킨 보루가 지방자치라는 게 이윳었다.

필자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방의회는 1991년, 단체장 직선은 1995년 이뤄졌다. 지방의회를 기준 삼으면 우리 지방자치는 26살 성년으로 성장했다. ‘경험이 없다’ ‘시민의식 수준이 반쳐지지 못한다’는 시행 초기 우려를 보기 좋게 지우며 우리 지방자치는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역설적으로 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